마우스, 키보드 자동화를 이용한 게임 매크로

2021204045 이성민

해당 문서는 함께 제공된 게임 매크로 Python 파일의 내용과 동작 방식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먼저, 해당 매크로는 학습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개발 외의 성능적인 사용은 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본 파일은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게임 매크로를 실행하는 python 파일 (Dragon(Nox540X960)가상키.py),

게임 매크로 실행 도중 게임 내부에서 실행되는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을 파훼**하는 python 파일 (Prevent_macro.py),

게임이 실행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실행할 수 있는 **디버깅용**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 파훼 python 파일 (**Prevent macro debug.py**),

혹시나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 파훼가 실패할 경우 사용자에게 알림을 주는 mp3파일 (EnderDragonDie.mp3),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이를 **촬영하여 저장**하는 파일(file),

매크로 방지 파훼 프로그램 디버깅용 여분 촬영 파일(Folder),

실제 게임에 적용시켜 실행하는 영상(실행동영상.mp4) (용량 문제로 화질이 매우 낮음).

그리고 상단의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본 문서 1부로 구성되어 있다.

1. 게임의 기본 설명



해당 화면은 게임의 메인 화면이다. 게임 매크로가 실행될 때 이 창이 무조건 실행되어 있어야 하며(창의 이름은 NoxPlayer이다.) 해당 화면을 화면에 띄워놓은 상태로 매크로 실행해야 한다. 매크로의 1 시이클이 마무리될 때 오는 장소이며, 매크로가 이를 인식하여 매크로를 시작/재시작하게 된다.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pc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Nox에는 가상키라는 기능이 있는데, 사전에 설정해둔 키보드의 키를 누르면 해당 화면을 자동으로 터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영웅들의 위에 떠 있는 파란색 바가 바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는 표시이며, 본 매크로 프로그램은 화면의 색을 인식하여 자동으로 키보드를 눌러 매크로를 실행한다.

각 영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도로시(hero1, 1), 엘리스(hero2, 2), 리사(hero3, 3): 해골 마법사, 궁수, 전사를 소환하는 마녀 소환사. 마녀 3명이 모두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높은 순위로 다른 마녀들과 함께 스킬을 사용한다.

크로노(hero4, Q): 스킬을 사용할 시 **게임 속도가 빨라진다**. 본인의 스킬 사용이 가능할 때, 높은 순위로 스킬을 사용한다.

퓨어 위자드(hero5, W): 스킬을 사용할 시 **영웅의 쿨타임이 빨리 찬다**. 다른 대부분의 영 중의 스킬 사용이 불가능하면서 본인의 스킬 사용이 가능할 때 스킬을 사용한다.

포세이돈(hero6, E): 스킬을 사용할 시 공격하는 **딜러**. 본인의 스킬 사용이 가능할 때, 낮은 순위로 스킬을 사용한다.

클레릭(hero7, A), 다크 네크로맨서(hero8, S), 다크 스켈레톤(hero9, D): 스킬을 사용할 시 각각 아군에게 버프를 주는 서포터, 적군에게 디버프를 주는 서포터, 적군에게 디버프를 주는 서포터, 적을 공격하는 딜러이다. 서로의 쿨타임이 비슷하여 3명이 모두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높은 순위로 함께 스킬을 사용한다.

스미스 2세(hero10, Z): 스킬을 사용할 시 성채의 HP를 회복한다. 성채의 HP가 얼마 없으면서 본인의 스킬 사용이 가능할 때, 매우 높은 순위로 스킬을 사용한다.

다크 엘프(hero11, X), 블루 디펜더(hero12, C): 각각 성채의 HP를 지속적으로 회복하는 서포터, 성채의 최대 HP를 올려주는 서포터이다. 스킬이 존재하지 않아, 매크로 python 파일에는 변수 할당만 되어 있고 사용은 되지 않는다.

(4월 4월 마을 아처1(villagearcher1, 4), 마을 아처2(villagearcher2, 5): 스킬을 사용할 시 (4월 4일 공격 공격 속도가 증가하는 **딜러**. 둘 모두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일 때, 매우 낮은 (4월 4일 소위로 함께 스킬을 사용한다.

2. 동작 방식



게임의 메인 화면이다. 이 곳에서 V키를 눌러 왼쪽 아래의 화면으로 진입한다.

왼쪽의 화면에서 다시 V키를 누르면 '레전더리 드래곤' 창으로 넘어가게 되고, 오른쪽의 화면에서 Space키를 누르면 전투 화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전투 화면으로 진입할 때 보통은 왼쪽의 화면으로 진입되어 **드래곤과의 전투**가 시작되지만, 약 1시간마다 오른쪽의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으로 진입하게 된다.

먼저 START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랜덤한 통나무에 스며들며, 이 통 나무들이 서로 섞인 뒤, 다이아몬드가 스며든 통나무를 찾아내 마우스로 클릭하는 방식이다.



해당 프로그램 파훼에 성공하면 왼쪽 위 화면으로 진입하여 다시 드래곤과의 전투가 시작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에선 해당 통나무를 일명 'macrotree'라고 명명한다.



드래곤과의 전투가 승리로 마무리되면, 드래곤이 있던 자리에 보물상자가 생성되면서 위에 붉은 글씨로 시간초가 세어진다.

해당 시간초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드래곤을 잡은 보상으로 한 장비가 드롭된다. 여기서 N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장비를 분해할 수 있고, M 버튼을 누르면 해당 장비를 내 인벤토리에 받아올 수 있다. 이 단계를 마무리하면 다시 게임의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고, 이를 반복한다.

3. 코드 설명

대부분은 코드 내부에 주석으로 설명을 달아놓았으니, 해당 문서에선 전체적인 코드 동작 방식을 설명한다.



3-1. Dragon(Nox540X960)가상키.py

```
# 창 크기와 위치
window =pyautogui.getActiveWindow()
window_title ='NoxPlayer'# NoxPlayer 앱이 켜져있어야 이 창의 크기를 확인하고 변수 좌표를 할당함
# 모든 창 목록을 가져옵니다.
windows =gw.getWindowsWithTitle(window_title)
# 창이 발견되면 위치를 출력합니다.
if windows: # NoxPlayer 앱이 켜져있다면
```

먼저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선 'NoxPlayer'라는 프로그램이 켜져 있어야 한다. 또한 이름에서 보다시피 540 X 960 해상도를 기준으로 맞췄기에 해당 해상도를 맞추면 문제 없이 해당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다.

start_dragonhunt() # 드래곤 사냥을 시작함.

각종 변수(좌표)를 할당한 뒤에, 드래곤 사냥을 시작하는 함수를 실행시킨다.

```
def start_dragonhunt():
    start() # 메인 화면에서 드래곤 전투 화면으로 입장하기 위해 실행
    delay(0.5, 0.6) # 0.5 ~ 0.6초 랜덤 딜레이
```

함수 시작부터 start() 함수를 실행한다.

```
def start(): # 메인 화면에서 드래곤 전투 화면으로 입장하기 위해 실행되는 함수 pyautogui.press('v') # 메인 화면의 드래곤 석상 delay(0.2, 0.3)

pyautogui.press('v') # 레전더리 드래곤 delay(0.05, 0.1)

pyautogui.press('space') # BATTLE delay(0.15, 0.2)
```

각각 메인 화면에서 드래곤 석상으로, 드래곤 석상에서 레전더리 드래곤으로, 레전더리 드래곤에서 BATTLE을 누르는 함수이다.







def monitor heroes(): # 본격적으로 드래곤과의 전투를 시작하는 함수

드래곤과의 전투 페이즈에 진입하게 되면, 영웅들의 스킬 사용 가능 여부와 기타 정보에 따라 다른 알고리즘으로 영웅들의 스킬을 사용한다. 그저 영웅의 스킬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구 사용해버리면 매크로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드래곤을 잡을 때 효율 또한 좋지 못하기에 적당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 영웅들의 스킬을 자동으로 사용한다.

```
# hp 적을 때 스미스 2세 스킬 1순위로 사용

if hero10skill and not hpfull: # 스미스 2세의 스킬이 사용 가능하면서 성채 HP가 절반 이하라면

press('z') # 스미스 2세의 스킬 사용(성채 HP 60% 회복)

delay(0.001, 0.002)
```

예를 들어 스미스 2세 당는 스킬을 사용할 시 성채 HP의 60%를 회복한다. 그러나 성채의 HP가 많은 초반에 이 스킬을 사용하면 스킬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 성채의 HP가 절반 이하일 때 해당 스킬을 사용하면 해결될 것이다.

red = (232, 77, 77) # 성채 HP의 丛


```
color_at_dragonhp0 =check_color_at_position(dragonhp0)
dragondie =is_similar_to(color_at_dragonhp0, cleared, 1) # dragon의 생사 여부 상태 갱신

if defeat: # 스킬 사용 사이사이에 꾸준히 패배 혹은 승리 확인.
    start_dragonhunt() # 패배했다면 다시 드래곤 사냥 시작
if dragondie : # 드래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면
    receive_compensation() # 보상을 받는 함수
```

결정한다.

함수 중간중간에 이런 코드를 꾸준히 볼 수 있는데, 해당 코드는 만약 영웅 스킬 사용 로직이 발동하고 있는 중간에라도 드래곤의 사망 혹은 플레이어의 패배를 감지할 수 있게 영웅 스킬 사용 로직 중간중간에 빼곡히 넣어 두었다. 다른 스킬 사용 코드는 주석에 설명을 넣어두었으므로 넘어가겠다.



dragonhp0 좌표의 색이 cleared와 1만큼 비슷 (거의 똑같음)하다는 것은, 드래곤을 해치워 보상 을 기다리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dragondie가 True라면 receive compensation() # 보자 을 받는 함수로 이동하게 된다.

```
def receive_compensation(): # 드래곤과의 전투 승리 시 보상을 받는 함수
time.sleep(2.5)
while True: # 다른 함수로 진입하지 않는 한(보상을 획득함), 계속 반복
color_at_resultcall =check_color_at_position(resultcall)
if is_similar_to(color_at_resultcall, brown, 1): # 드래곤을 해치우고 보상 창이 뜬다면
delay(0.4, 0.5)
color_at_rating =check_color_at_position(rating) # 보상의 등급 색을 확인
if is_similar_to(color_at_rating, A_color, 20): # 보상의 등급 색이 A_color와 20만큼 비슷하다면(A등급이라면)
pyautogui.press('n') # 보상을 가루로 분해함
delay(0.1, 0.2)
pyautogui.press('n') # 보상을 가루로 분해함(2차 확인)
else : # 보상의 등급 색이 A_color와 20만큼 비슷하지 않다면(S등급이나 L등급이라면)
pyautogui.press('m') # 보상을 인벤토리 내에 받음

delay(0.2, 0.3)
start_dragonhunt() # 모든 단계를 끝마치면 다시 드래곤 사냥 시작
```

보상을 받는 함수이다. 보상 창의 brown색을 인식하여 재료로 분해할지, 혹은 인벤토리로 받을지 결정하는 함수이다. 사진의 재료 위의 하늘색 가루가 보이는가? 저 곳의 색을





color_of_rating이 인식하여 보상으로 받는 장비의 등급을 판별한다. 사진의 등급은 A급이다.

만약 보상으로 받는 장비가 S급이나 L급이라면 가루는 왼쪽과 같은 색을 띄게 된다(해당 등급 장비의 등장 확률이 낮아 인벤토리의 사진으로 대체한다...). 그래서 만약 해당 가루의 색이 A_color와 20만큼 비슷하다

면(A급의 장비라면) N 키를 눌러 장비를 분해하고, 비슷하지 않다면(S급이나 L급이라면) M키를 눌러 인벤토리로 장비를 받아온다. S_color, L_color 색 배열은 당장은 사용하지 않으나 나중에 더욱 상위 드래곤을 상대하는 매크로를 만들 때를 위해 미리 해당 색 배열을 마련해놓았다. 보상을 분해하거나 받는 데 성공하였다면, 다시 start_dragonhunt()의 처음으로 돌아가 상기한 단계들을 반복한다.

3-2. Prevent_macro.py



BATTLE 버튼을 눌렀을 때, 약 1시간마다 드래 곤 대신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상 기한 방식대로, START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의 다이아몬드가 랜덤한 통나무로 스며들고, 통나 무들이 서로 섞인 뒤 다이아몬드가 스며든 통나 무를 선택(클릭)하면 해당 창이 닫히고 다시 드 레곤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방식이다.

color_at_prevent_macro =check_color_at_position(prevent_macro) # prevent_macro 좌표의 색을 확인
mecro_prevent =is_similar_to(color_at_prevent_macro, brown, 2) # 확인한 색이 brown과 2만큼 비슷한지 확인(거의 똑같아야 함)
if mecro_prevent: # 색이 비슷하다고 확인된다면 mecro_prevent는 True의 값을 가짐. 아니면 False.
subprocess.run(['python', 'C:/Visual_Studio_Code/GrowCastle/Prevent_macro.py']) # Prevent_macro.py(메크로 방지 프로그램 과혜) 실행

상기한 방식대로 해당 창의 배경인 brown을 인식하여 Prevent macro.py를 실행한다.

```
# 저장할 이미지 수
num_images =80

screenshot =pyautogui.screenshot()
# 지정된 영역 잘라내기
cropped_image =screenshot.crop((macrobar))

# 이미지 저장
cropped_image.save(f"C:/Visual_Studio_Code/GrowCastle/file/1.png")

click(macrobarstart)

# 이미지 생성 및 저장
for i in range(num_images):
# 전체 화면 스크린샷 찍기
screenshot =pyautogui.screenshot()
```

```
# 지정된 영역 잘라내기
cropped_image =screenshot.crop((macrobar))

# 이미지 저장
cropped_image.save(f"C:/Visual_Studio_Code/GrowCastle/file/{i +1}.png")
```

여기서부턴 Prevent macro.py의 코드이다. macrobar는 매크로 방지 프로그램의 갈색 창 범위 이다. 또한 macrobarstart는 사진에 보이는 START 버튼의 범위이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고 □4+≥ 부터 80장을 연속적으로 찍어서 file 폴더에 ② ② ③ 14 8½ · □ ±7 · 은 이러한 과정으로 거쳐 찍힌 사진들이다. 또 ••한 본 문서와 함께 포함되어 있는 file 폴더와 함께 <u>Prevent_macro_debug.py</u>(디버깅용 결과 출력만 Stary 지하여 지점 확인할 수 있다. (;) (;)

```
for i in range(8, 25):
# 이미지 경로 설정
image_path =f"C:/Visual_Studio_Code/GrowCastle/file/{i}.png"
# 이미지 읽기
image =cv2.imread(image_path)
```

file에 저장된 사진 중 8부터 시작하여 24까지 분석한다. 그러나 중간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루프가 종료된다. 이 특정 조건은 밑에서 설명하겠다.

```
# 목표 색상과 허용 오차 설정

target_color =np.array([(145, 194, 214)]) # GBR 기준
diamond_color =np.array([(247, 195, 63)]) # GBR 기준
tolerance =15 # target_color의 범위
tolerance2 =100 # diamond_color의 범위

# 색상의 상한과 하한 설정
lower_bound =target_color -tolerance
upper_bound =target_color +tolerance

lower_diamond_bound =diamond_color -tolerance2
upper_diamond_bound =diamond_color +tolerance2

# 이미지에서 목표 색상과 가까운 부분 바스크 생성
mask =cv2.inRange(image, lower_bound, upper_bound)
diamond_mask =cv2.inRange(image, lower_diamond_bound, upper_diamond_bound)

# 마스크된 영역을 초록색으로 변경
image[mask !=0] = [0, 255, 0]
image[diamond_mask !=0] = [0, 0, 0]

# BGR에서 HSV로 변환
hsv_image =cv2.cvtColor(image, cv2.COLOR_BGR2HSV)
```

```
# 마스크에서 초록색 뭉치 찾기
contours, _=cv2.findContours(mask, cv2.RETR_EXTERNAL, cv2.CHAIN_APPROX_SIMPLE)
diamondcontours, _=cv2.findContours(diamond_mask, cv2.RETR_EXTERNAL, cv2.CHAIN_APPROX_SIMPLE)
# 최소 면적 필터 (큰 뭉치만)
min_area =130

# 검정색 뭉치들의 중심 좌표 계산 및 출력
count_black_blobs =0
for contour in diamondcontours:
    area =cv2.contourArea(contour)
    if area >=min_area:
        count_black_blobs +=1
        M =cv2.moments(contour)
    if M["m00"] !=0:
        cX =int(M["m10"] /M["m00"])
        cY =int(M["m01"] /M["m00"])
        cv2.circle(image, (cX, cY), 5, (0, 0, 255), -1)
    else:
        pass
```



여기서 통나무의 윗면의 색을 인식하여 초록색 마스크를 입혀 표시하였고, 다이아몬드의 좌표 또한 cX, cY로 표시하 였다. 그런데 여기서 통나무의 옆면도 같이 인식이 되어 초 록색 뭉치의 개수가 16개가 되는(윗면 8개 + 옆면 8개) 참 사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min_area = 130를 지정하여 면적이 이보다 높은 초록색 뭉치만 분석에 활용하 였다. 이렇게 하면 통나무의 옆면은 min_area를 넘지 않아 분석에 활용되지 않는다.

```
# 초목색 뭉치가 7개 미만이라면 루프를 끝냄

count = 0

for contour in contours:
    area =cv2.contourArea(contour)
    if area >=min_area:
        count +=1

if count < 7:
    break
```



여기서 통나무가 섞이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리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통나무 8개 중, 6개 이하만 인식이 될 정도로 사진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분석 결과도 이 상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루프를 종료한 다. 왼쪽의 사진은 이 경우에 부합하는 사진 으로, 해당 사진은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루프를 끝낸다.

count =0 # 초록색 뭉치의 좌표 표시



인식된 초록색 뭉치의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 그리고 중점을 출력한다(만약 가장 왼쪽과 가장 오른쪽을 이은 선보다 가장 위쪽, 가장 아래쪽을 이은 선이 더 길다면 해당 선으로 대체한다.). 그러나 이 중점은 초록색 뭉치의 중점이지 통나무의중점이 아니다. 아래의 코드를 통해 통나무의 중점을 구할 수있다.

```
# 선의 각도 계산 (atan2 사용)
dx =rightmost[0] -leftmost[0]
dy =rightmost[1] -leftmost[1]
angle =math.atan2(dy, dx) # 각도 (라디안 단위)

# 수직 방향으로 선을 그리기 위한 각도 계산 (현제 각도에서 90도 회전)
perpendicular_angle =angle +math.pi /2 # 90도 (라디안) 추가

# 23 픽센 떨어진 좌표 계산 (중점에서 수직으로)
offset_x =int(23 *math.cos(perpendicular_angle))
offset_y =int(23 *math.sin(perpendicular_angle))

# 새로운 좌표 계산
new_point = (midpoint[0] +offset_x, midpoint[1] +offset_y)
new_point2 = (midpoint[0] -offset_x, midpoint[1] -offset_y)

rgb_color1 =image[new_point[1], new_point[0]]
rgb_color2 =image[new_point2[1], new_point2[0]]

distance1 =np.linalg.norm(midpoint_color -rgb_color1)
distance2 =np.linalg.norm(midpoint_color -rgb_color2)
cv2.circle(image, new_point2, 5, (0, 0, 0), -1)
cv2.line(image, midpoint, new_point2, (0, 0, 0), 2)
```

해당 사진은 통나무의 중점을 구한 사진이다. 그러나 후에 중점의 색을 구하는 부분이 있어

중점을 표시하지 않고 반대편을 표시했다. 검은색 선 부분은 중점의 반대편 이며, 붉은 직선의 반대로 같은 길이, 같은 각도로 선을 그으면 중점을 알 수 있다. 아래의 코드는 중점으로의 선을 긋는 코드이다.

cv2.circle(image, new_point, 5, (0, 0, 0), -1)
cv2.line(image, midpoint, new_point, (0, 0, 0), 2)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new_point와new_point2중에 무엇을 중점으



로 삼을지에 대한 코드가 없어, 조금만 통나무의 각도가 틀어져도 중점이 중구난방해진다. 아까 검정색부분이 중점의 반대편이라고 하였는데, 검정색 부분이 중점인 통나무들은 통나무의 중점으로 이상한 좌표가 부여되어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를위해 new point와 중에 무엇을 중점으로 삼을지에 대한 코드가 필요하다.

```
if mp.array_equal(rgb_color1, background_color) or np.array_equal(rgb_color2, background_color): # point 2계 중, 무엇이 if mp.array_equal(rgb_color1, background_color): # point 2계 중, 무엇이 if mp.array_equal(rgb_color1, background_color): new_point, new_point, new_point, new_point rgb_color1, rgb_color2, rgb_color1

elif not np.array_equal(rgb_color1, background_color) and not np.array_equal(rgb_color2, background_color): # ti mp.array_equal(rgb_color1, background_color) and not np.array_equal(rgb_color2, background_color): # ti mp.array_equal(rgb_color2, background_color): # ti mp.array_equal(rgb_color1, new_point2, new_point) # mp.array_equal(rgb_color2, new_point2, new_point2)

# new_point # new_point # mp.array_equal(rgb_color2, new_point2, distance_to_new_point2)

# new_point # new_point # mp.array_equal(rgb_color2, new_point2, new_p
```

다시 말하지만, 검정색 부분은 중점의 반대 방향이다. 해당 코드를 실행하면 왼쪽의 사진처럼 제대로 중점이 부여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먼저, point 2개 중, 무엇이 background_color과 더 가까운지 체크한다(background_color는 brown을 GBR화 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 더 비슷하지 않은 쪽을 중점으로 선정한다. 만약 두 point가 색이 똑같다면, 이전 사진의 중점의 좌표 previous macrotree midpoint coords 와의 거리를 각각 비교하여 더 가까운 중점을 진짜 중점으로 선정한다.

해당 코드는 previous macrotree midpoint coords와 가장 가까운 통나무의 중점에 같은 이름을 보여하는 과정이다.

위치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점의 macrotree에게 번호를 계승함으로써 번호가 바뀌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

```
if count_black_blobs >=1:
    min_distance =float('inf')
    closest_macrotree =None

for i in range(1, 9): # macrotree1 ~ macrotree8 반복
    macrotree_name =f'macrotree{i}'
    macrotree_point = (macrotree_coords[macrotree_name][6], macrotree_coords[macrotree_name][7])

# 거리 계산
    distance =calculate_distance((cX, cY), macrotree_point)

# 가장 가까운 macrotree 찾기
    if distance <min_distance:
        min_distance =distance
        closest_macrotree =macrotree_name

diamond_macrotree =closest_macrotre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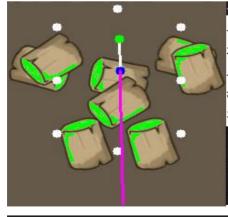
print(f"다이아몬드 트리는 {diamond_macrotree}")

다이아몬드 트리는 macrotree8

해당 코드는 macrotree의 중점과 다이아몬드의 중점 좌표(cX, cY)의 거리를 비교하여 가장 가까운 macrotree를 선별한다. 이 다이아몬드가 스며든 macrotree의 diamond macrotree에 저장한다.

```
previous\_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6] \qquad !=0 \qquad and \qquad previous\_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6] \\
=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
           cv2.arrowedLine(image,
                                                                      (previous_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6];
previous macrotree coords[diamond macrotree][7]),
                                                                               (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6],
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7]), (255, 0, 0), 2)
          cv2.circle(image.
                                                                      (previous macrotree coords[diamond macrotree][6]
previous_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7]), 5, (0, 255, 0), -1) # 시작점 (녹색)
           cv2.circle(image, (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6], 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7]), 5, (255,
0, 0), -1)
          print(f"시작:
                                                                     {(previous macrotree coords[diamond macrotree][6]
previous_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7])}
                                                                   끝: {(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6],
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7])}")
              start_coords =list(previous_macrotree_coords[diamond_macrotree][6:8]) # [6], [7]을 리스트로 변환
```

전 사진의 diamond_macrotree의 중점 좌표가 초록색 점, 현재 diamond_macrotree의 중 점 좌표가 파란색 점이다. (참고로, 붉은 색 선의 색 차이는 macrotree의 번호와는 전혀 상관 이 없다. new point와 가장 가까운 previous macrotree midpoint coords 찾기를 참고하자.) 따라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diamond_macrotree의 이동 방향, 즉 벡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for i in range(8, 25):반복문이 끝나면서부터 코드의 끝 부분까지, 이 벡터를 구하고 온갖 변수(예: 섞이면서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보정치, 가운데를 기 준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섞임 등)에 맞게 벡터를 가공 하고, 이 벡터와 가장 가까운 하얀색 점을 구하여 아래와 같이 출력한다.

macrotree2 64.78016372986997 macrotree3 63,5839258699388 macrotree5 68.20412633165685 결과 macrotree: macrotree4

이렇게 나오면, macrotree click coords macrotree4 3.674227468704632 의 'macrotree4'를 클릭하게 된 macrotree6 67.01600646972656 다. 아래는 클릭 코드이다.

coords =macrotree_click_coords[result_macrotree]

```
time.sleep(0.01)
pyautogui.doubleClick()
else:
print("오류: 잘못된 macrotree 이름입니다."
```